

## [ 오피니언 ]

## 다산포럼

허 육



"살 빼기를 원하면 우선 커다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맨 몸을 살펴보라. 그리고 살을 뺄 때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상상하라. 또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라." 한 다이어트 강사가 들려준 살 빼기 비법이다. 그는 운동과 식이요법에 앞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듣고 놓기 부여를 위한 강력한 방법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바람직한 미래 한국경제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라는 거울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이다. 한국의 교역규모는 WTO가 발표한 2003년 기준 3,726억불로 세계 12위이다. 세계 교역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면적으로 세계 109위, 인구 규모로는 26위에 불과한 한국이 이러한 성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하다. 에너지(원유, 석유가스), 양곡(사료포함), 원면 등 국가경제에 꼭 필요한 7대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수출로 번 돈의 20%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은 명목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80%가 넘는 나라이다. 쉽게 말해 대외의 존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나라경제 재생산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수출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지난 50년간에 걸쳐 한국경

## 한국경제의 진로와 FTA

제가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인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물류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본 질서로 주제하였다. GATT에 이은 WTO 제제의 출범과 DDA 협상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중대한 특징 중 하나는 세계화와 지역주의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 150개국에 달하는 WTO 가맹국간에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여 공동의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가 밀접한 나라들끼리 서로 특혜를 주는 지역주의적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체결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자본과 기술의 최대 공급국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BRICs 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의 체결이 필요하다. 지역체제로서의 한-중-일 FTA 체결이 중요하고, EU 수준의 수출비중을 갖고 있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뿐 아니라 남미대륙을 포함하는 NAFTA와의 협정체결도 필요하다. FTA 체결은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상호간 경제통합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연대 또는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FTA 대상국 선정에는 경제적 차원만이 아니라 외

교, 안보적인 측면까지 고려된다. FTA 체결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원하는 내용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국과 우리가 서로 원해야 협상이 시작되고, 또한 상호 이익이 있어야만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전략은 대내경제발전전략과 대외경제협력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내전략은 성장동력산업육성, 인적자원개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둘째 성장 등이다. 대외협력전략에는 WTO, DDA와 같은 세계적 차원의 협력, FTA, APEC, ASEAN 등 지역차원의 협력, 개별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산업기술, 에너지, 환경, 통화금융 등의 분야별협력이 있다.

최근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이른바 4대 통상현안 등 쟁점을 해명하는데 급급하여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외경제협력 전략 중 하나라는 큰 그림을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한-캐나다, 한-아세안 FTA 협상,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과 같은 중요한 대외협력 추진 내용은 아예 어론의 뒷전에 묻혀버렸다. 큰 거울이 필요한 상황이다.

〈LIBRA컨설팅 대표〉  
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유영업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환경단체는 지난달 24일~28일 5일간 영산강 물줄기의 첫 시작 담양군 용소에서부터 광주·나주·무안·영암·목포를 거쳐 영산강 하구둑에 이르는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를 진행하였다. 140km를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탐사하며, '영산강 350리, 그 생명의 물길을 따라'라는 주제를 되새겼다.

광주·전남의 환경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기업, 언론사, 대학, 중·고등학교, 영상사업단체, 의료기관, 119구급대, 전국 강 네트워크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아낌없는 성원은 탐사대에게는 자

던 근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산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함께 한 영산강 대탐사! 이제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영산강이 생명의 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8월 말 이번 탐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구성을 논의할 것이다. 네트워크에는 강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영산강을 되살릴

## 영산강 살리기,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랑스러운 '주억'을, 영산강에는 새 도약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특히 영산강 물줄기 곳곳에서 만났거나 방송과 신문·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격려해주신 광주·전남 시·도민의 관심은 이번 탐사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

5일간의 여정은 영산강의 상처와 고통의 현장을 찾고 또 찾는 일정의 연속이었다. 맑게 흐르던 강이 땅에 갇혀 담담해하고, 시멘트로 덮칠해 본연의 모습을 잊어가고 있었다.

반복되는 불법 경작, 강변에 쌓인 쓰레기, 삼각망과 폐어망, 간벌되어 방치된 폐목들이 영산강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거대한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하구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바다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는 고대문화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영산강이 고대로부터 삶의 터전이었으며, 친란한 문화를 꽂아온 향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을 맑고 깨끗한 강으로 가꿔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특히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책책임자들이, 올해 10월 안 가능한 시일 내에 우리가 보았던 영산강의 상처 날 물줄기를 치료해 주기를 희망한다.

더 늦지 않게, 영산강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강의 곳곳을 안내하며, 그곳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열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줄인 영산강이 무분별한 개발과 시민의식의 실종으로 신음하고 있다. 후세에 물려줄 이 환경은 우리가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시·도민의 힘으로 살아나는 영산강, 이제 그 시작이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기능성 껌 소비자 값 장소에 따라 들쭉날쭉

말을 많이 하는 직업 때문에 입 벅차 제거를 위해서 껌을 자주 사는데, 처음에는 고작 몇 백원이겠지 싶어 가격을 제대로 보지 않

고 있는데 파는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가격이 5천원인 자일리를 껌은 파는 곳에 따라 가격이 3천원에서 5천원까지 제각각이었다. 다른 회사에서 판매되는 자일리를 껌값도 소비자 가격은 3천원이지만 장소에 따라 990원까지 팔리고 있었다.

흔히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소비자 가격'이라는 기준제시를 보고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파는 곳에 따라서 껌값이 최대 2천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소비자 가격이 판매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소비자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어 책정해야 할 것이다.

▲신은영·광주시 남구 양과동

## 찰각! 동물 세상

## 인공 포유



어미가 먹여 키우지 못해 수의사 등이 우유를 먹이어 키우는 것을 '인공 포유'라고 한다. 자연 포유와 상대되는 말이다.

동물원에 있다보면 '야생 동물들은 자연이 키운다'는 말을 실감한다. 또 어미 옆에서 키워지는 새끼들은 날마다 쑥쑥 커간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몰라볼 정도다.

반면 인공포유의 경우는 수의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반복으로 시름해 키워도 영양결핍에 의한 저혈당증, 너무 급히 먹여 발생하는 식체(소화불량)가 자주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이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키워낼까?

또 젖을 떼는 과정(이유)에서 거친 풀이나 사료로 자연스레 변경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때도 꼭 한 번은 탈이 난다.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일은 보람을 느끼는 것만큼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 요구한다. '이제 괜찮겠지'라고 안심해

도 되는 시기까지 성장시키려면 주말을 포기해야 한다. 때로는 집에도 데리고 다녀야 한다.

◇ 최종 육

광주·전남 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소값 가격 연동제 유명무실... 중간상인 폭리

소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 산지 소값이 많이 떨어져 무척 걱정스럽다. 그런데 도시 소고기값은 여전히 비싸고 내리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분통이 터진다.

축산 농가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값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 미리 조기 출하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 소값이 500kg 속소가 380만원 정도이고 암소는 470만원 정도로 많이 내려갔다.

소값 폭락이 과잉 입식이나 무더기 출하 때문이라는 등 축산 농가들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축산 정책 부재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종언·곡성군 석곡면

에 따른 중간 상인들의 폭리 때문에 도시 소비자는 비싼 소고기를 먹고 있다니, 도무지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산지 소값이 내리면 도시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소비자 가격도 자동적으로 따라 내리는 이른바 '가격 연동제'는 어디로 갖는지, 당국은 행정 저지를 폄하나 있는지 궁금하기 만하다.

소값 폭락이 과잉 입식이나 무더기 출하 때문에 농가들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축산 정책 부재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종언·곡성군 석곡면

밀상상부한 세계 최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수로, 지도자로 반세기 이상을 브라질 축구를 위해 헌신한 자갈로 같은 대스타가 있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축구의 기록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

는 결승전에 기용되자 월드컵 이상의 날카로운 공격을 펴부으며 월드컵의 빅리에

출전해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그의 기록은 4년 동안 펼쳐졌다.

그는 1974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 축구를 세계 최강으로